



[산업]  
전선 넓히는  
네이버·카카오  
간편결제 2R  
06

[라이프]  
신세계百  
3대 빵집 입점  
'빵 승부'  
L1



## 재능 살리고 창의력 키우고… 꿈꾸는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



㊣ 한국투자증권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한국투자증권의 사회공헌 활동은 ‘나눔’으로 압축된다. ‘사랑나눔, 행복나눔’이라는 구호 아래 오랜 기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면서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손길을 뻗고 있다.

### ◆미래세대에게 꿈… 재능 계발 후원

‘꿈을 꾸는 아이들’은 한국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장기지원 프로젝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매년 학업, 예술, 체육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 50여명을 선별해 특기·적성 개발비를 지원하는 후원 사업이다. 배움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재능 계발을 후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그 결과 지금까지 재능을 보이는 여려 학생을 발굴해 지원했다. 피겨스케이팅, 사이클, 피아노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이들은 청소년대표 선수로 활약하거나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꿈을 펼쳐가는 중이다.

2017년부터 백일장 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고자 위함이다.

올해 4회째를 맞은 드림 백일장은 지난 6월 ‘나의 꿈’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시와 수필 두 부문에서 총 1022편의 작품을 접수했다. 이후 심사를 통해 132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부문별 대상 1명과 최우수 5명, 우수 10명 등 총 132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지만 대신 입장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아동센터 다섯 곳에 문학 전집과 초등생 필독서를 지원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권대웅 시인은 “응모작 속에 펼쳐지는 각기 다양한 수많은 꿈을 읽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의 사려 깊은 시선과 상상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스트레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글쓰기가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리 학생들이 글쓰기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상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 소속 국내 프로축구단 FC서울과는 2008년부터 파트너십을 체결해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초청해 FC서울 소속 선수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다양한 축구 수업을 진행



지난 6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가운데)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함께한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FC서울과 함께 양천구 계남초등학교 학생 46명을 초청해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을 진행하는 모습.



지난 2월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긴급 혈액 릴레이 행사에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왼쪽)과 박종배 한국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이 혈액을 하고 있다.

### 미래세대 성장 지원 사회공헌 활동

**학업·예체능 분야 학생 선발해 후원  
전국 어린이 위한 백일장 대회 개최**

**저소득층 아동 초청해 축구교실 운영  
소외이웃 대상 임직원 봉사활동 펼쳐**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10억 기부  
혈액수급 위기에 릴레이 협력행사도**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참가 아동 모두에게 개인 맞춤 유니폼과 축구화,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 기념 셔츠 등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축구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현역 선수들과 호흡하는 자리인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는 매년 겨울방학 중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방임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따뜻한 식사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지원한다. 공연, 캠프,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여가시간을 풍성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구세군서울후생원 풋살경기장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일문 사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기증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칭그랜트 제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나눔의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이 제도는 2013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매월 임직원이 기부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해 사회공헌사업의 기금을 마련한다.

같은 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출범한 ‘참벗나눔 봉사단’에도 현재 본사와 전국 영업지점 임직원 150여명이 소외된 이웃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

발히 펼치고 있다.

참벗나눔 봉사단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자녀동반 벽화 그리기’를 꼽을 수 있다. 지역사회 노후화된 복지관 건물 등을 벽화로 새 단장 한다. 참벗나눔 봉사단은 지난 6월 서울시 금천구 박미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단과 봉사단 가족은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마을회관 벽면에 꽃, 나무, 바다 등 자연을 담은 대형 벽화를 그렸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성금 지원과 협력 행사

한국투자증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기부된 성금은 코로나19 집중 발생지역의 취약계층 지원과 환자치료, 의료진을 위한 방호 장비 구매 등에 쓰였다.

앞선 2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혈액 수급 위기가 발생하자 정일문 사장과 박종배 노조위원장과 포함한 임직원이 긴급 릴레이 협력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협력 행사에 참여한 정일문 사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국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운 상황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단체 협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